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강릉시 인구정책 전략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산업위원회 박경난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방쇠퇴, 소멸의 위기 속에 강릉시의 인구정책 전략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릉시 인구는 2022년 11월 말 기준 21만1541명으로 23만3121명으로 정점이었던 2000년에 비해 약 9.3%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강릉시는 2010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후 2013년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시작됐고, 이후 자연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진학과 취업으로 20대 청년층의 유출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2020년에는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미혼·비혼·만혼, 고령화 등으로 인해 1인 가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등록 인구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강릉시는 청년층 인구감소로 도시경쟁력은 약화되고 지역발전이 정체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농어업과 같은 1차 산업은 물론 건설현장, 숙박, 음식업 등의 관광서비스업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유지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는 2025년은 강릉시와 명주군이 통합된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강릉시는 2025년을 인구 증가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특단의 인구 유입, 증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밝힌바 있습니다.
지역의 미래 비전을 그릴 때는 먼저 인구 동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미래 인구의 추이는 산업정책, 도시정책, 고용정책, 사회보장 정책 등 각종 정책과 맞물

려 가기 때문입니다.
인구증감에 따른 의료, 교통, 교육과 같은 생활 서비스는 어떻게 유지해나갈 것인지, 주택, 도로, 주민생활 편의시설 등의 인프라는 어떻게 보수해나갈 것인지, 지역의 산업이나 고용은 어떻게 개발해나갈 것인지 수많은 과제와 씨름해야 합니다.
따라서 막연하게 인구를 늘리겠다는 선언보다 인구구조 변화, 인구이동의 특성 파악, 정주환경 개선 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주인구의 유출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층의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여성 청년의 유출은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 9월 한국개발연구원 정책포럼에 발표된 '청년층의 지역 선택을 고려한 지방소멸 대응방향'이란 주제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대학 진학 단계의 정책적 개입 보다 취업 단계의 정책적 개입이 보다 효과적이며, 지방인재의 지방기업 취업에 대한 지원이 진학 및 취업 단계에 모두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역청년의 지역기업 취업을 유도할 수 있는 보조금, 세제혜택 지원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릉시가 '합동 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해 청년들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강릉의 비전과 매력을 함께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지역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시내권과 농어촌 지역 간의 격차는 물론 시내권내에서도 구도심과 신규 택지 간에도 정주환경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지역은 학교, 공원, 문화공간 등의 편의시설이 부족합니다. 신규 아파트 단지로 젊은 인구들이 이동하면서 공동화,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구도심과 구생활주거지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인구이동에 맞춘 편의시설 확충과 지역재생사업을 통해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동네마다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도시정책

을 펼쳐야 합니다.
셋째, 수도권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이주민 유치 정책도 필요합니다. 2016년~2021년까지 강릉시 연도별 인구 순이동 현황을 보면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유입이 더 많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도시민들이 '교통 주거환경', '건강 자연환경'이 좋아서 강릉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릉지역의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이주민 친화도시로의 이미지를 높여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관계인구, 유동인구 유치 노력도 중요합니다. 내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과 더불어 강릉시에 기부하는 시민들을 미래 이주해 올 강릉시민으로 인식하고 강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강릉으로 이주해올 경우 제공할 혜택 등에 대해서도 고민하였으면 합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경제개발 시대에는 인구규모와 구조가 사회경제 시스템을 따라갔지만 이제는 바뀐 인구구조에 사회경제 시스템을 맞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릉은 장점이 많은 도시입니다. 명실상부한 문화관광도시이자 영동지역 교육중심지입니다. KTX 개통 이후 강릉을 방문하는 연령이 20대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청년들에게도 강릉은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청년들에게 재미있는 도시, 이주민을 환대하는 도시, 강릉 어느 곳에서도 어느 누구라도 살기 좋은 도시. 강릉시가 나아가야 할 도시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